

韓國農民의 行爲變化 測定을 爲한 理論的 模型研究

—특히 婚·喪契 參與를 中心으로*—

金 一 鐵

I. 問題의 提起

行動의 變化는 態度의 變化와 密接한 關係에 있다. 態度 變化는 나아가 他人과의 相互作用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生의 場」에서 이루어진다. 社會變動 역시 이러한 人間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수 있다. 本稿는 人間相互作用과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基本 次元을 일단 보류하고 巨視的 次元에서 行動變化 模型을 社會變動속에서 摸索하고자 하였다.

一般的으로, 發展하고 있는 傳統的 社會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點이 指摘된다. 즉 한 分野에 있어서의 變動이 이와 관련있는 分野에 있어 必要한 다른 變動을 惹起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급속한 死亡率의 低下는 널리 보급된 西歐 醫學技術의 단순한 結果이며, 西歐社會에 있어서는 技術의 發展이 文化價值體系의 變動을 가져오는데 반하여, 既存의 傳統의 文化價值와 規範이 變動하지 않은채 이러한 西歐의 技術採擇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現代의 後進社會는 西歐社會의 發展에 비추어 볼때 수많은 “逸脫”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逸脫, 즉 文化遲滯現象(Ogburn)은 확실히 問題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逸脫된 發展은 是正될수 있으며 西歐社會가 追究하여 왔던 方法과 後進國들이 現在 追究하고 있는 方法간의 간격은 좁혀질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間격이 비교적 좁혀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發展 方法을 택할 可能性은 있는 것이다.

變動의 方法과 方向을 決定하기 위하여는 우선 傳統의 信念과 價値가 어떻게 變하고 새로운 事物과 環境에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筆者는 社會發展에 있어서의 傳統의 價値의 役割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論文에서 調查하려는 두가지 組織은 韓國社會에 있어서는 가장 오래된 傳統의 組織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까지도 韓國農村社會에 있어서 強力한 組織인 것이다. 모든 村落은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이러한 組織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組織의 參與에는 孝, 相扶

* 筆者는 서울 大學校新聞大學院, 助教授

相助, 氏族觀念 등과 같은 傳統的 價値와 文化가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한 組織은 점차 힘을 잃어가는 반면 또다른 한 組織은 여전히 健在하는것을 관찰할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이러한 變動이 일어나며, 이러한 變動의 原因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變動을 어떻게 說明하며, 왜 어떤 組織은 變動하는데 다른 또 한 組織은 變動하지 않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먼저 두가지 組織과 이들이 어떻게 變動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II. 두개의 組織과 그 變動

A. 婚 契

契라고 하는것은 계약을 뜻하며 婚契란 이웃끼리 그들의 子女가 結婚할 경우에 그들의 經濟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金錢이나 쌀을 모아주며 또한 自己의 家族이 婚事를 치르게될 경우 그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非公式的 相扶相助는 오랜 歷史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組織은 經濟的인 觀點에서 보면 公共貸付業의 不足으로 說明할 수 있으며 또한 原始的인 貸付體系와 선물 的 복합형태로도 볼수있다. 婚契를 形成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가까운 이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그 構成員은 10名에서 15名에 이르고 있다.

어느 村落에 있어서나 이러한 契가 存在해 왔다. 그러나 婚契는 점점 無力 해지고 있으며 사라져가고 있다. 그 대신에 더욱 有利한 經濟組織이 婚契에 대신하여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쌀契인데 이것의 目的은 각 契員들이 낸쌀을 子女就學, 婚事, 혹은 土地買入으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貸付하는 것이다.

쌀契는 商業的 貸付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차로 쌀契가 婚契보다 유용하다고 생각하게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에 參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婚契가 없는 村落을 많이 보게 되었다. 또 婚契가 서로 이웃을 그 基盤으로 두는데 반하여 쌀契는 村落의 境界를 넘어 때로는 여러 村落民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B. 喪 契

喪契는 이웃의 喪을 당했을 경우에 서로 돕는 또하나의 傳統的인 組織형태이다. 늙은 父母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父母의 喪에 대비하여 일종의 協力體를 조직하는 것이다. 喪의 절차는 入棺, 棺을 운반하는 行列, 弔客을 위하여 집앞에 세우는 텐트를 준비하는 등, 많은 노동력을 必要로하며 이러한 일을 떠 맡는 專門職이 없으므로해서 그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상당한 費用을 필요로 한다. 喪契는 孝와 密接한 관계가 있다. 喪을 잘지낸다는 것은 孝의 一部가 되어왔다. 喪契는 少數의 集團보다는 때로는 村落

전체를 포함한다. 契員끼리 金錢을 주고 받는것은 婚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婚契와 比較하여 본다면, 喪契는 農民들간에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 이것은 거의 모든 村落이 예외가 아니다.

때때로 婚契와 喪契는 婚喪契의 復合 형태로 나타나있는데 그 機能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으며 단지 이들의 目的이 복잡적일 뿐이며 때로는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 다만 그들의 機能만은 변하지 않고 있다. 婚契와 喪契는 보통 公式的인 會合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成文規定도 갖추고 있지않다. 다만 雜務를 처리할 事務員 1인이 있고 이미 잘 확립된 傳統的인 慣習만을 따라갈 뿐이다.

Ⅲ. 研究의 目的

組織體變動 研究에 있어서 2가지의 範疇를 設定하는데, 環境的, 外部的 變動과 個別的, 內部的 變動이 그것이다. 前者는 巨視的으로 본 全體社會構造의 社會經濟的 變動이며 後者는 微視的으로 본 人間內面的 變動을 뜻한다. 이러한 區分은 물론 서로 獨立的인 것은 아니며 相互 補完的인 것이다. 人間社會와 관련있는 社會變動에 있어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人間的 要素, 價値의 變動, 思考形態, 퍼스널리티, 관심 및 決定등과 같은것이 필연적으로 포함된다. 西歐의 技術을 採擇한 앞서의 例도 또한 조만간에 價値體系를 變動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程度, 時間 및 方向의 問題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上記의 分類은 理論的으로는 타당하지 못하며 變動의 問題를 人間的 要素의 文脈에서 살펴보는것이 適當한 것처럼 보인다.

後進國에 있어서의 社會變動에 관한 많은 研究를 살펴보면 學者에 따라 다른 準據들을 強調해서 使用하고 있다. 變動과 近代化에 關한 社會學的인 研究에서 Parsons系統에 있어서는 價値(Value)를 重要變數(key variable)로서, Weber 에 있어서는 價値뿐만 아니라 合理性(rationality)을, McClelland와 Hagen 에 있어서는 成就欲求 및 퍼스널리티를, Hoselitz와 Northrop에 있어서는 哲學的指向과 思考形態를 強調하고 있다.

이러한 差異點은 相異한 社會에 관한 概念과 相異한 準據들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의 準據들에 의하여 이러한 여러가지 要因의 出處를 調查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研究가 단일 準據에 의하여 행하여졌고 어떠한 것들은 經驗的 實證을 거치지도 못하였다.

이 論文의 目的은 (a) 現存하는 여러개의 準據들을 結合하여 單一 理論體系에 적용하며 (b) 經驗的 實證을 試圖하며 (c) 組織 參與에 있어서 새로 結合시킨 準據를 使用하여 變動을 測定하며 (d) 社會變動에 있어서 傳統的價値가 어떠한 役割을 수행하는가를 보기 위한 것이다.

IV. 問題의 討議와 各概念의 說明

이제 變動 要因에 關한 重要한 理論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A. 社會變動에 있어서 價値, 갈등 및 利益의 概念

價値에 대한 重要性은 Weber의 “프로테스탄트의 倫理와 資本主義 精神”의 研究로부터 시작된다. Weber는 價値가 利益을 위한 行爲의 合理化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肯定하면서 프로테스탄트 倫理로 부터 나온 價値와 資本主義의 發生과의 연관 關係를 強調했다. 그의 “經濟的 合理性”은 어떤 宗教的 世界觀 乃至는 價値의 結果이다. 資本主義 精神은 態度 혹은 價値(Pareto의 “氣分”)의 背景이며 하나의 “使命感”을 형성한다. Weber에 있어서는 行爲者는 基本的으로 價値에 反應하는 것이다.⁽¹⁾ 그는 또한 일 한다는 것이 罪에 대한 처벌로 認識되는 社會體系에서 이 똑 같은 일이 贖罪의 方法으로 또 宗教的 理想으로서의 職業으로 소개되면 노동, 노력, 儉素의 美德이 사람들 사이에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美德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經濟體系의 改善을 惹起한다.⁽²⁾ 比較社會學 分野에서의 Weber의 平生의 研究는 社會體系에 合法性을 부여하는 價値가 그 體系의 組織構造보다 先行하며 반드시 附隨現象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³⁾

반면 Marx는 社會變動은 利益集團의 갈등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람들은 그들의 특징이익이 사실은 社會體系의 構造에 의하여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認識할때 變動을 시작할 의무를 느끼며 制度化된 價値는 支配階級이 現狀維持를 위하여 만든 附隨現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⁴⁾ Marx의 基本的 주장은 어떤 종류의 經濟的 혹은 다른 物質的 必要性이 새로운 社會形態를 위한 方向을 設定하고 따라서 價値는 社會의 새로운 動向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人間이 文化的인 背景아래서 만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構造機能 理論에서 Parsons는 進行中인 社會體系에 있어서 利益葛藤의 底邊에 있는 合一에 주의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利益追究가 價値, 規範, 利益形成 그 자체의 共通的

*Irene. B. Taeuber, "Population Growth in Southeast Asia," in J. Spengler and O.D. Duncan(ed.), Demographic Analysis, Free Press, Ill., 1956, p.757

- (1) T. Parsons, Introduction, in M. Weber,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trans. T. Parsons, Free Press, 1966
- (2) M.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 by T. Parsons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30) See also R. Merton, "The Unanticipated Consequences of Purposive Social Action", ASR, 1 No. 5 (1936), 894-904
- (3) For criticism of Weber see K. Samuelson, Religion and Economic Action, trans. E.G. French (N. Y. Basic Book, 1961). In support of Weber see also G. Lenski, The Religious Factor (N.Y. Doubleday and Co., 1961)
- (4) L.S. Fener, ed., Basic Writings on Politics and Philosophy: 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N. Y. Anchor Books, Doubleday, 1959) See specially p.26ff

인 frame-work 內에서 행해지지 않는다면 “利益交叉”體系는 安定될수 없다는 것이다.⁽⁵⁾ 또한 人間行爲에 있어서 兩者擇一은 필수적 이지만 오직 價値만이 평가 기준을 제공하며 追究하는 目的을 特定化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⁶⁾

Dahrendorf는 Parsons의 이러한 견해를 일축한다. 그는 “Parsons의 견은 價値와 規範에 의한 分析을 위한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安定보다는 葛藤 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規範의인 面이 아니라 社會構造의 制度的인 面에 관심을 가져왔다. Marx의 研究가 그러한 경우다”⁽⁷⁾라고 말하고 있다. (Dahrendorf는 制度를 行爲의인 面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Parsons는 規範의인 面에 사용하고 있다)

價値合一과 利益葛藤이라는 上記 두 主題는 機能主義와 辨證法이라는 제목으로 상세하게 거론된바 있으며, 이 두가지 接近方法은 Van den Berghe의 論文에서 훌륭하게 고찰되고 있다.⁽⁸⁾ 理論으로서 이 두가지 觀點은 統合을 향한 長期的인 觀點에서 볼때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며 兩立할수 없는 것도 아니다. 兩理論은 기본적으로 平衡模型에 근거를 두고 있다. 一辨證法도 또한 平衡상태를 가지고 있다: “These”는 원래 平衡상태이며 “Synthese”에서 다시 均衡상태로 되돌아간다. 機能主義에서는 社會體系란 항상 平衡상태에 있다. 이들은 또한 進化論의이다. 辨證法의 過程은 進歩를 향한 나선형적 진행이며 機能主義는 復合의 構造에 서의 進化的 成長(生物學的 進化論과 마찬가지로)을 前提로 한다.⁽⁹⁾

兩理論이 모두 價値와 利益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이 두 主題를 價値와 利益이라는 문제에 限定, 특별히 考察해보자.

統合理論家(機能論者)들은 價値에 대한 合一에 重點을 두고 있으며 葛藤理論家들은 價値의 葛藤을 重視하고 있다. 統合理論에 있어서는 價値는 利益에 대한 制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葛藤理論에 있어서는 特定集團의 利益은 集團 構成員의 行爲를 정당화하기 위한 方法으로서의 造作的 價値로 이해된다. 어떠한 理論家도 價値나 利益에 의한 行爲를 無視하지는 않지만 變動의 方向 設定에 있어서 兩要素중 한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경향은 있다.⁽¹⁰⁾ 이 대조적인 두 견해가 최종적으로 반드시 選擇對象일 필요는 없다. 價値와 利益이란 어떤 歷

(5) T. Parsons, “Polarization and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Order”, Berkeley Journal of Sociology, VI, No. 1, 1961, 115-34

(6) T. Parsons, The Social System, Free Press, N.Y.

(7) Dahrendorf,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Calif., Stanford Univ. Press, 1959, p.160

(8) Pierre L. van den Berghe, ASR, Vol. 28, No. 5 (1963), 695-705

(9) Conflict theory is more clearly systematized in Blau P.M.,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John Wiley, N.Y. 1967, pp. 253-282, pp.312-338

(10) M.A. Neal, Values and Interests in Social Change, Prentice Hall, N.J. 1965, p.7. She well compared two theories in terms of differences in the frame of reference.

史的 條件에 따라서는 다른 役割을 할수있다. 만일 그러하다면 Neal 이 지적 한대로 문제는 “이러한 條件들은 무엇이며, 또 相異한 解釋과 分析에 어떻게 관련지우느냐”하는 것이다. (11)

이러한 점에서 “價値”와 “利益”이라는 말에 대한 定義가 요구된다. 價値란 넓은 意味의 善이라는 概念에 포용되며 利益은 個人이나 個人이 속해있는 集團을 有利하게 할려는 欲求이다. 集團에 대한 基本的 關心은 예들들던 家族을 책임지는 家父長的 役割처럼 일정한 役을 맡는것이 必須條件이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役割은 既存하는 社會文化體系에 의하여 規定된다. “價値는 發展을 위해 特定規範과 組織의 法則 및 行爲의 合理性을 제공하는 것이다” (12)

그러므로 이점에서는 두 主題에 대해 더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않는다. 이들은 排他的이기 보다는 相互補完的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單線一方的 因果關係로 社會現實의 動態를 설명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을 함께 고려에 넣어야 하며 어느 한 要因을 촉진하는 狀況의 變數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두 要因이 서로 연관을 맺거나 또는 分離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제3의 要因으로서의 促進變數를 알아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B. 價値와 傳統에 있어서의 “思考形態”와 合理性의 概念

Northrop 는 東西의 比較에서 연관성을 지닌 二分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즉 “相異한 哲學의 概念을 바탕으로 政治的, 經濟的, 美的, 宗教的으로 다른 理想이나 價値를 가진 文化들은 두 group 으로 나뉘지는데 하나는 事物의 本能에 대해 각기 다른 要素를 언급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경우며 또 하나는 똑 같은 要素의 相反된 事物을 강조하기 때문에 對立하는 경우이다. 事物에 있어서 西洋哲學이 理論的으로 증명되고 추론된 要素를 강조하는데 반하여 東洋哲學은 現時的 美에 관심을 쏟는것은 첫번째에 해당하며 中世와 近世 혹은 原始共產社會와 民主的 經濟, 政治 理論을 비교하는 것은 두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13)

Northrop 이 언급한 中世的 價値와 近代的 價値의 差異點은 Weber 와 그의 追從들에게서 고찰할수 있는 傳統的行爲와 合理的行爲의 比較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思考形態에 있어 美的이나, 概念的이나 하는 比較는 새로운 次元이다. Northrop 의 설명에 따르면 東洋의 美的 思考는 경험적이며 自我表現的이다. 그는 예로서 兩文化의 繪畫와 文法을 비교 하면서 東洋의 경우 中國繪畫는 전체적인 感覺의 印象 및 靜의 現時性이 강조되는 반면 西洋 繪畫

(11) Neal, op. cit., p.7

(12) W.E. Moore, Social Change, Prentice-Hall, N.J., 1963, specially see pp.89-96

(13) F.S.C. Northrop. The Meeting of East and West, N.Y.: MacMillan Co., 1960, p.437

에 있어서는 次元的 空間感, 遠近法, 照明과 色彩, 効果등이 강조된다고 설명하고 또한 東洋의 같은 對象에 대한 직접적인 感覺의 表現인데 비하여 西洋의 같은 복잡한 文法을 수반한다고 지적한다. (14) 이것은 물론 二分法으로 볼 수는 없으며 차라리 양끝에 순수한 美的形態와 理論的形態가 있고 중간에 一聯의 여러 단계를 가진 Continuum이다. 즉 東西洋의 어느 哲學도 순수하게 美的이거나 理論的인것은 아니며 두개의 要素가 각각 다른 비율로서 혼합된 형태이다.

여기에서 Weber의 合理性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Weber는 그의 宗教研究에서 불교, 힌두교, 유교 등의 東洋宗教의 敎理가 왜 프로테스탄트와 같은 倫理를 제공하는데 실패했으며 아시아 諸國의 市場交易에서 볼 수 있는 富에 대한 탐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動機들은 合理的인 經濟的 倫理의 표현이 아니라 個人的인 特性이나 魔術의 信念의 表現이라는 것을 立證하려 하고 있다. (15)

Weber는 經濟的 合理的 行爲와 傳統의 行爲를 확연히 區分하고 있다. Parsons에 의하면 Weber는 (a) 한 行爲가 분명한 목표, 혹은 뚜렷하게 公式化되고 論理的 一貫性을 지닌 價値에 指向하는 경우와 (b) 가장 유용한 知識에 따라 선택된 수단이 목표의 實現을 위하여 채택되는 경우를 合理的이라고 하고있다. (16) 한편 傳統主義는 Weber에 의하면 “습관적인 日常에 대한 心理的 태도 및 관에 박힌 日常生活을 필연적 行動規範으로 믿는 信條를 뜻하는 것이다. (17) 이는 두가지를 뜻하는데 즉 습관적 行爲와 自意의 行爲이다. 傳統과 區別되는 傳統主義는 과거의 歷史에 근거를 두고 그 타당성을 聖스러운 起源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변경이 힘들다. (18) Shils는 傳統主義的 指向 行爲는 “傳統의인 속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長點이 聖스러운 起源에서 傳受된것으로 믿는 상태에서의 傳統的 規範에 대한 自己 긍정이다”라고 명확한 설명을 하고있다. (19)

(14) For a more extensive discussion of the “Aesthetic Character”, see Northrop, op. cit., pp. 315ff

(15) Bendix, Reinhard; Max Weber, An Intellectual Portrait, Gardern City, N.Y. Doubleday, 1960, pp. 117-211. Also see B.F. Hoselitz, “Economic Development and Change in Social Values and Thought Patterns”, in G.K. Zollschan and W. Hirsch (eds.), Explorations in Social Change, Houghton Mifflin Co., N.Y. 1964, specially see pp. 674-678

(16) M. Weber, op. cit., p.16, Introduction by Parsons.

(17) M. Weber, “The Social Psychology of the World Religions”, in H.H. Gerth and C.W. Mills, (eds.), From Max Weber N.Y. 1946, p.296

(18) For detailed discussion of traditional action, see Parsons, introduction in M. Weber, op. cit., and also see, B.F. Hoselitz, “Tradition and Economic Growth”, in R. Braibanti and J.J. Spengler (eds), Tradition, Values,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Duke Univ. Press, Durham, N.C. 1961, 84ff. For distinction of tradition from traditionalism see E. Shils “Tradition and Liberty: Antimony and Interdependence”, Ethics, Vol ZLVIII, No 3, (1958), pp. 160-161

(19) E. Shils. op. cit., p.160

따라서 傳統指向行爲는 傳統主義의 指向行爲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Hoselitz는 Weber의 分析을 면밀히 조사한후 合理的 行爲體系와 傳統的 行爲體系에 대한 Weber의 分類가 概念이 不分明하다고 비판하고 意識의 程度에 따라 傳統的 行爲의 4가지 形態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²⁰⁾

습관 : 非規範的, 非自意識的, 非公式化된

용법 : 規範的 " "

규범 : " 自意識的 "

이념 : " " 公式化된

그는 특히 두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a) 公式化된 行爲와 非公式化된 行爲의 區分은 여러 다른 社會的 行爲에 부가된 극적 合理性(Weber의 價値合理性)의 程度와 관련이 있다. (b) 非公式化된 規範的 自意識的 行爲는 傳統的 規範에 근거하며 반드시 과거에서 그 타당성을 찾는 의도적 行爲의 體系의 complex의 部分을 형성하는 것이 아닌 반면, 公式化된 行爲는 그러한 Complex의 部分이다"⁽²¹⁾

Hoselitz에 의하면 傳統은 傳統主義와 달리 "過去의 죽은 손이 아니라 보호자의 손이며 스스로는 도저히 그토록 강할수 없는 판단의 경향을 키워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傳統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個人에 대한 敵이기보다는 補強劑인 것이다. 즉 도덕적 판단이나 自己訓練을 위한 아편이 아니라 자극물인 것이다."⁽²²⁾ 이렇게 보면 傳統的 規範은 社會變動에 대한 방해물일수 있는 동시에 社會를 安定시키는 중요한 機能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傳統主義는 傳統을 위한 傳統의 誇張이며 항상 社會變動에 逆行하는 理念이다.

이제 다음과 같은 結論을 내릴 수 있을것 같다. 즉 合理的 行爲는 行爲가 일어나는 그 社會의 價値와 關係가 있으며 價値體系에 따라 行爲者는 여러형태로 狀況과 行爲를 合理化할 것이다. 合理性은 文化的 認識과 現實 긍정의 副產物이며 또한 社會의 文化的 規範에서 派生된 認知的 過程이다.

이제 다시 Northrop의 思考形態에 대한 考察로 되돌아가 어떻게 思考形態를 合理성과 價値에 관련시키며 왜 사람들은 각기 다른 思考形態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差異는 어디에 起因하는가를 살펴보자. 思考形態는 歷史의 發展過程에서 축적되고 혼련된 思考方法의 습관이다. 이것은 短期間의 結果가 아니다. 社會全體 構成員의 思考形態는 文化環境과 傳統의 關係에서 특징지워진다. 그들의 思考가 合理的인가, 非合理的인가, 혹은 審美的인가, 理論的

(20) Hoselitz, op. cit., p.87

(21) Hoselitz, op. cit., p.87

(22) Hoselitz, op. cit., p. 99

·인가 하는것은 ‘歷史的 傳統의 內的 產物’이다.

만일 思考形態를 評價와 判斷의 過程으로 본다면(이것은 機能主義의 입장이며, Parsons의 行爲類型變數 참고) 思考形態는 그 社會에 風靡하는 價値에서 나온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를 廣義의 認識의 方法으로 본다면 여기에 副應하는 보다 一般의이고 廣義의 文化 概念이 나올것이다. 어쨌든 思考形態는 一般의으로 價値의 影響을 많이 받는것이 분명하다.⁽²³⁾ 여기서 思考形態는 合理化와 合理性의 根底를 이루며 傳統은 물론 價値도 合理性과 思考形態의 進路의 方向을 상당한 정도 제시해주고 있다는 입장에 이르게 된다.

(C) 社會變動에 있어서 心理學的 要因의 概念

Daniel Lerner는 中東의 近代化 過程 研究에서 “主體의 客觀的投視(empathy)”이라는 概念을 사용해서 各國 近代化의 격차를 설명하고 있다. 이개념을 使用한 의도는 각기 다른 近代化 단계에 있는 國民들의 態度的 차이를 心理學的으로 설명하기 위한것이다. 이개념은 世界에 대한 眼目을 넓혀 주는 반면 傳統의 態度 및 生治樣式과의 斷絶을 가져다 준다. 사람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및 近代化에 접하게 되고 이결과로 그들의 “主體의 客觀的投視” 즉 他人의 觀點에서 世界를 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를 관찰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²⁴⁾ 이러한 能力은 다른 어떤 社會보다도 近代社會의 특징을 이룬다. Dalton Potter가 그의 書評(ASR)에서 지적한대로 그러나 이러한 概念이 人間本性에서 나오는 것인지, 혹은 社會的으로 결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되어있지 않다. 즉 이것은 社會環境的 變動에서 생기는가 혹은 變動하는 環境에 적응하는 個性의 結果로 생기는가하는 것은 알려져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構造的 變數라기 보다는 본질적으로 個性의 한 側面이므로 人間퍼스널리티 영역에 넣는것이 별로 무리는 아닐 것이다.

퍼스널리티를 보다 狹意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經濟學者 Hagen의 社會變動에 관한 分析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는 근본적으로 社會的 行爲를 퍼스널리티 및 性向과 혼동하고 있다. 그의 “革新的 퍼스널리티”는 經濟發展의 第一原因으로 생각되고 있으나⁽²⁵⁾ “withdrawal of status respect”는 經濟的行動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그의 理論에서 論理的推論을 하여 가난한 사람은 權威主義의이기 때문에 더욱 가난해지며 富者들은 革新的이기 때문에 더욱 富者가 된다는 式의 論理와 비슷한 結論을 내리고 있다. 이 論理는 妥當性있는 설명을 缺하

(23) See, Hoselitz, “Economic Development and Change in Social Values and Thought Patterns”, in G.K. Zollshan and W. Hirsch (eds), op. cit. 673-693

(24) Daniel Lerner, Passing of Traditional Society, Free Press, N.Y.

(25) E.E. Hagen, On the Theory of Social Change, The Dorsey Press, Ill., 19 63, especially see pp. 185-193

고 있고 몇가지 결정적 誤謬를 범하고 있다. 즉 왜 그들이 革新的 혹은 權威的인가에 대해 설명이 없으며 많은 研究 결과 가난한 사람들이 富者보다 利潤이나 利益 追究에 열성이 작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성격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특별한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富裕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 더 權威的 일수있을것이라는 증거가 있을 뿐이다.

또한 Hagen은 人間行爲의 社會學的 검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것 같다. 經濟的 行爲는 퍼스낼리티의 작용만은 아니다. 그 사이에는 많은 變數들이 介在하며 또한 퍼스낼리티 그 자체도 社會經濟的 文化的 기능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 퍼스낼리티를 二次 現象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McClelland의 成就欲求에 대하여서도 이와같이 말할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는 한 人間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가는 그의 成就欲求의 強度에 달려있다. 그의 動機 즉 成就欲求는 근본적으로 感情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感情과 동일한 것은 아니며 感情的 狀態에서의 變動에 대한 기대이다.⁽²⁶⁾ 이러한 感情은 원래 유기체의 적응력과 感覺的 혹은 認識的 過程간의 괴리의 작용이다. 긍정적 感情은 그 괴리가 적을때 나타나며 그 괴리가 클때는 否定的 感情이 나타난다.⁽²⁷⁾ 成就欲求와 職業간의 관련성은 그의 유명한 著書 *Achieving Society*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²⁸⁾ 어쨌든 心理學者 McClelland의 動機는 근본적으로 社會的 動機이다 (Scheriff의 용어). 이것은 社會的 背景 속에서 個人의 成長 過程中 획득되는 것이며 個人相互關係, 集團關係, 그리고 이미 확립된 社會的 價値 및 規範과 制度등과의 相關하에서 形成된다. 그러므로 發展의 動機로 간주되는 成就欲求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발달된 技術과 資本家精神의 產物이다. 이것은 論理的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動機가 孤立된 單位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있다. 실제로 일정한 動機는 다른 心理學的 機能 및 社會學的 環境과 關係를 맺고있다. 그리고 더구나 行爲는 誘發된 動機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것이 아니며 또한 行爲가 外的 자극에 따라 직선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아니다. 動機는 價値와 過去의 經驗뿐 아니라 外的 環境에서 誘發되어 동시에 작용하는 다른 要因들과 關係 지워져야 한다.⁽²⁹⁾

社會變動에 대한 心理學的 설명은 우리가 살펴본바와 같이 훌륭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의 分析單位인 心理學的 變數는 社會生物的 環境에 대한 適應過程인 것이다. 그

(26) D.C. McClelland et. al., *The Achieving Motive*, 1953, 28 ff. also see evaluation by K.B. Madse, *Theories of Motivation*. Munksgaard, Copenhagen, 1961, p.199

(27) D.C. McClelland et. al., op. cit., p. 42-66

(28) D.C. McClelland, *The Achieving Society*, Free Press, 1961, see specially ch. 9

(29) M. Scheriff, *An Outline of Social Psychology*, 3rd ed., Harper and Bros., N.Y. 1965, pp.370-380

더므로 心理學的인 現象은 二次現象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 여러 要因들을 순수하게 心理學的인 單一次元으로 壓縮하는 것은 社會變動의 動的 過程을 이해하는데는 부적당하다. 여기서 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單一 要因도 근본 원인이나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著者들이 이문제를 다른 문제들과의 관련하에서 살피는 데 실패했는데 가능한한 여러 要因들을 고려에 넣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V. 理論的 分析들 : 概念의 定義

A. 概念的 模型

여기까지는 價値, 利益, 合理性, 思考形態, 傳統, 主體의 客觀的 投視, 動機, 社會變動에 있어서의 퍼스널리티의 機能에 관하여 검토해 왔다. 이제 이들을 새로운 準據들에 綜合化할 단계이다. 모든것은 모든것에 관련이 있다든가, 單一 變數가 다른 모든것의 근본 原因이라는 입장은 社會科學에서는 허용될수 없다. 여기서는 관찰을 통하여 중첩되는 것과 차이를 찾아내고 이를 좀더 精密한 分析體系에서 修正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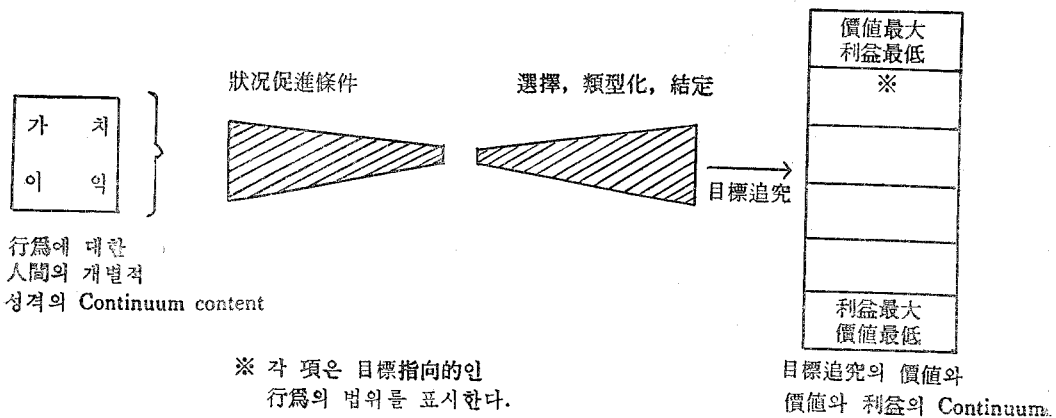
이미 관찰한바와 같이 價値와 利益의 機能은 相互 獨立의이 아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利益 價値 兩者에 다 응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은 연관을 가질수 밖에 없다. 이들은 相互相方的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利益指向 行爲가 있다고는 假定할 수 없다. 兩者는 각각의 狀況에서 각기 다른 비율로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다. 價値는 또한 觀念的 機能을 강조하는데 비해 利益은 人間欲求 機能을 강조한다. 반면 合理性和 思考形態는 文化的 拘束을 상당히 받는다. 文化에 따라 合理化的 方法과 思考形態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대체로 文化的 差의 영역으로 壓縮시킬 수 있다. 여기서 社會의 文化的 特徵을 살필 필요가 있다. 合理性和 思考形態를 重要變數로 취하는 사람들은 個人的 內的 過程을 주로 다루고 있는 것 같다.

動機, 퍼스널리티, 主體의 客觀的 投視에 의하여 變動을 설명하는 것은 社會的 側面보다 個人的 側面에 重點을 둔 결과다. 즉 個人的 差이를 質的인면에서 탐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心理學的 變數는 근본적으로 社會 構造의 現實이나 傳統의 二次 現象이다. 그러므로 주변의 社會文化的 環境이 心理學的 差이를 발생시키는 先行變數인 것이다.

筆者의 分析 體系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人間行爲에 있어 “목표나 목적”을 설정하는 일이다. 여기서 취급하려는 것이 意識的 傳統指向 行爲(조직에의 參與)이기 때문에 行爲의 목적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目標을 人間行爲에 어떻게 관련시키는가? 물론 行爲의 個人的 目標나 目的이 社會的으로 文化的으로(Parsons 용어를 빌리면 보편적으로)規定된 價値나 規

範과 孤立된 것일수는 없다. 目標란 行爲者가 追求하고 바라는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目標은 個人이 처한 조건에 따라 價値指向의 目標, 혹은 利益指向의 目標로 달라진다. 이익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集團(내용과 목적에서)에 유리하게 할려는 短期的 慾望”으로 보편적일수도 있고 특정적일 수도 있다.⁽³⁰⁾ 이와는 달리 價値는 “善惡에 대한 概念이므로 (내용과 목적에서) 어떤일을 하는(과정과 수단에서) 概念的 표준을 제공하는것이다.” 價値는 道德的 標準 뿐만 아니라 行爲 方法 및 思考 形成에 도움을 주는 社會生活의 매개체와 文脈을 이룬다. 따라서 價値는 兩者擇一에 있어서 選擇과 評價의 基準을 제공하는 것이다.⁽³¹⁾ 모든 사람은 아무리 利益指向의인 行爲와 目標을 追求하더라도 價値에 구속되며 또한 아무리 價値指向의인 行爲와 目標을 追求한다 할지라도 利益에 구속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價値나 利益의인 行爲를 촉진하는 제 3의 變數가 造作되어야 한다. 이러한 變數는 狀況의 促進 條件인데 이것은 “特定한 行爲目標나 類型을 자극하는 社會的 狀態”를 의미한다.

그 관계를 표시하는 圖表는 다음과 같다.



(圖表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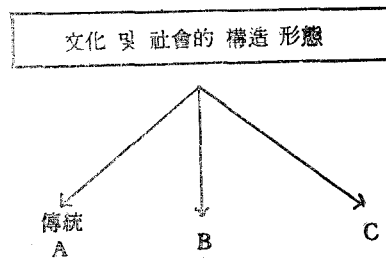
價値와 利益간의 葛藤은 그 자체내에서 필요불가결하며, 다른 價値와 다른 利益간의 葛藤 또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行爲에 대한 일정한 범위를 選擇하는 최종 결정은 두가지 要件에 달려있다. 즉 價値와 利益에 대한 continuum에 있어서의 個人的 proportion과 狀況條件이 그것이다.

狀況의 條件은 다른 生態學的 狀況 및 個人 心理學的 分野와의 관계 및 時間에 따라 變換

(30) M.A. Neal, op. cit., p.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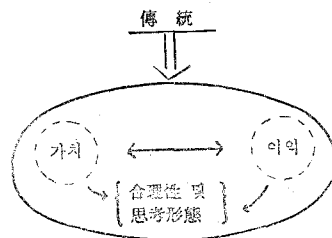
(31) P.M. Blau, op. cit., pp.153-281, and also T. Parsons, Social System, Free Press, N.Y. 1965., ch. 2 and 6

다. 그러나 思考形態와 合理性은 價値—利益의 個別的 continuum의 領域에 속하는 것이다. 즉 思考形態와 合理性은 “價値 機能의 評價의 側面”을 말한다. 이는 認知的 思考過程과 對象에 대한 認識이다. 또한 傳統은 價値와 利益 全般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人間性向의 continuum content로서의 價値와 利益은 傳統의 指示와 統制아래 놓인다. 이것은 확실히 社會의 文化 및 社會的 構造에 따라 여러가지 傳統이 類型化되고 形成됨을 뜻한다.



(圖表 II)

각기 다른 社會 傳統이 어떻게 한 社會안에서 形成되며 전체적으로 한 文化안에서 어떻게 相異한 傳統들이 形成되는가 하는 문제는 여기서는 論外의 問題라 하겠다. 그러나 최소한 傳統은 오랜 歷史의 過程에서 확립되며 人間行爲는 傳統의 貫性에 의하여 定한 類型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왜 나하면 傳統은 對象에 대한 評價와 利益 결정의 方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 個人이 傳統의 行爲樣式에서 얼마나 벗어날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가 처한 狀況促進條件에 달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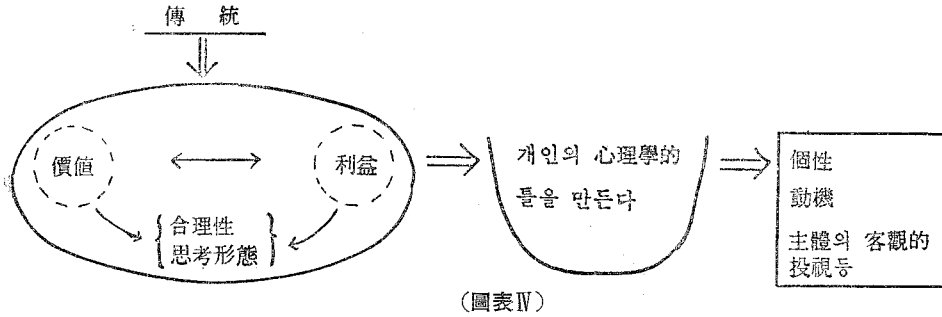
(圖表 III)

傳統은 個別的 概念들에 있어서 일종의 特定한 價値를 基準으로서, 또 利益을 目標로서, 選定해주며 이를 통해 對象을 관찰하고 追求할수 있는 方法, 思考形態와 合理性이 形成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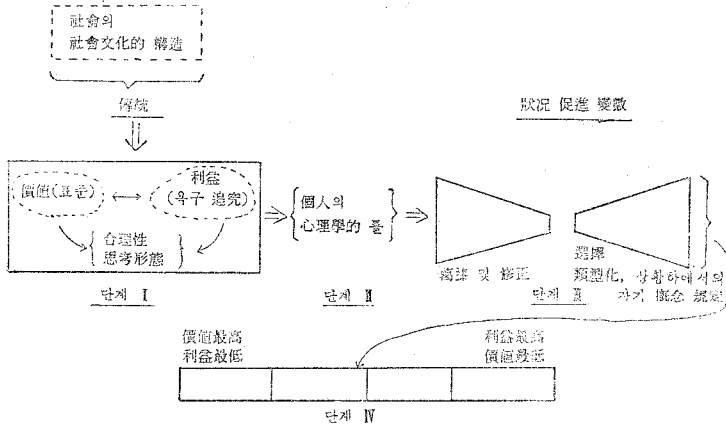
다음 문제는 心理學的인 變數, 즉 動機, 퍼스널리티, 主體의 客觀的 投視등을 어떻게 리의 分析틀 속에 넣는가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은 이것들은 根本的으로 二次 現象들이다. 그러므로 이를 社會—文化的 傳統의 副產物로서의 合理性和 思考形態 아래서 고

찰하는것이 타당한것으로 보인다.

心理學的 要素들은 環境에 대한 適應의 결과로서 公式化된 二次的 要素다. 즉 社會의 社會文化的 傳統의 影響下에서 形成된것으로 社會文化的 傳統의 支配圈안에 있다. 心理學的 變數들은 비록 二次的 要因이긴 하지만 行爲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다.



以上の 諸討議를 아래와 같은 圖表로 要約 될수 있다.



圖表V 社會行爲에 있어서 目標達成에 관한 여러가지 變動要因에 관한 分析 틀

B. 研究의 범위

上記 圖表에 나타난 단계 I에서 단계 IV까지의 모든 문제는 組織에의 참가 및 그 變動에 대한 研究에서 고찰되어야 할 과제다. 그러므로 문제는 傳統的인 價值와 利益이 現狀況의 條件에서 어떻게 修正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a) 契에 따르는 傳統的 價值와 利益을 規定하는 것. 즉 相扶相助, 經濟, 兩親에 대한 價值 및 利益 規定.

b) 傳統的 價值와 利益을 위하는데서 생긴 퍼스널리티와 動機에 따라 個人的 心理的 틀을 定義하는 것.

- c) 주어진 環境에서 目標取得과 관련, 個人에게 부과되고 영향을 주는 중요한 狀況變數를 規定하고 찾아내는 것.
- d) 契員들간에 우선권을 갖는 目標取得의 形態를 規定하고 찾아내는 것.
- e) 契에 대한 契員들의 態度를 規定하고 測定하는 일. 이것은 相扶相助, 經濟, 兩親에 대한 態度를 뜻한다.
- f) 契員간들의 傳統的 價値 및 利益과 變動된 價値觀 및 利益간의 理論的 比較.
- g) 이러한 比較를 통해 韓國에 있어서의 變動에 대한 一般的이며 理論的인 模型을 찾아내고 韓國의 社會文化的 狀況下에서의 “近代化”를 規定하는것 등이 이 研究에 부과된 問題이다.

Ⅵ. 文獻, 假說 및 造作的 定義에 대한 考察

人類學的 많은 研究들은 어떤 分野의 文化는 다른 分野의 文化와 比較하여 比較적 쉽게 變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있다. 특히 文化的 物質的 側面은 非物質的 側面보다 變하기 쉽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러한 점을 지적한 人類學者들의 말을 몇 인용해보자.

• Barnett; “……文化에 있어 感知 가능한 面은 純粹觀念的이거나 行動的인 面 보다도 훨씬 전파가 쉽게된다”⁽³²⁾ “전파에 있어서 X 그 自體를 소개하지 않고 X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는것은 不可能하다.”⁽³³⁾

• Gulick; “物質的 特性은 非物質的 特性보다 쉽게 傳達된다”⁽³⁴⁾

한편 어떤 文化的 屬性은 修正이 훨씬 어렵다는것이 또한 지적되고 있다.

• Hoselitz; 어떠한 革新이 “傳統的 慣習, 習慣, 行爲樣式을 포기하도록 할때”에는 저항을 받는다”⁽³⁵⁾

• Mead; “傳統的 生活 樣式에 대한 적극적 價値가 頂點에 달했을 경우 變動은 저항을 받으며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맴돌게 된다”⁽³⁶⁾

• Beaglehole; “단일 새로운 모델이 構造特質과 一致할 경우에는 ego involvement로서 反應하지만 一致하지 못할 경우에는 自我排斥, 不安感을 낳고 ego-involvement가 가능하기 전

(32) H.G. Barnett, Innovation, The Basis of Cultural Change, N.Y. 1953, McGraw-Hill, p.375

(33) H.G. Barnett, op. cit., p. 332

(34) John Gulick, Social Structure and Culture Change in a Lebanese Village, N.Y. Viking Fund Publications in Anthropology, No. 21, 1955, p.138

(35) B.F. Hoselitz, “Problems of Adapting and Communicating Modern Techniques to Less Developed Areas”, in L.Shanon (eds), Underdeveloped Areas, Harper and Bros., N.Y. 1957 pp. 407-408

(36) M. Mead. Cultural Patterns and Technical Change, Paris, UNESCO, 1953, p.202

에 再評價된다”⁽³⁷⁾

契에 관련된 傳統的 價値를 評價하기 위해서는 價値를 二分하여 2개의 範疇로 나누는것이 좋다. 하나는 個別的인 經濟的 利益追究, 즉 經濟에 관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孝, 즉 그들의 부모에 관한 價値다. 이러한 개별적인 經濟的 利益追究와 孝에 관한 두개의 價値는 契의 가장 뚜렷한 側面이다. 前者는 後者보다 人間生存에 직접 관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이다. 그러나 前者도 文化의 구속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後者和 마찬가지로다. 婚契물락의 이유는 構成員이 集團의 利益보다는 個人的 利益을 점점 더指向하게 되는데 있는것 같다. 그러나 喪契는 孝에 대한 傳統的 信念과 밀접하게 관계 돼 있어 이러한 信念과 관계가 없는 婚契보다 훨씬 변화가 힘들고 固定的이다. (주의: 婚契는 子女를 위한것이고 喪契는 父母를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假說을 세울 수 있다.

(가설 I): 子息의 婚姻과 相扶相助에 관한 傳統的 價値가 孝에 관한 傳統的 價値보다 더 쉽게 변한다.

(가설 II): 集團利益에 관한 傳統的 價値는 個人的 利益指向으로 변모한것이 뚜렷하다.

이러한 두개의 假說은 上記 筆者가 언급한 研究의 범위에서 c, g를 제외한 거의 모든 項目에 해당하며 狀況變數를 탐구하는 c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바라고 變動模型과 近代化 문제인 g는 결론의 마지막 단계가 될것이다.

<操作的 定義>

契에 대한 參加와 관련, 傳統的 價値는 다음과 같이 操作的으로 定義할 수 있겠다.

A. 婚姻에 관한 價値: 자식의 婚姻은 兩親이 정해주며 子息은 父母에게 복종하는 것이 傳統的 信念이다.

B. 相扶相助에 관한 價値: 이웃은 일종의 “大家族”이 되며 이웃을 개인적 관계와 無關하게 도와준다는것이 傳統的 價値다.

C. 孝에 관한 價値: 兩親이 돌아가셨을 때 훌륭한 喪을 치르고 이를 통해 양친을 기쁘게 하며 체면을 유지한다는 의무감을 강조하는것이 傳統的 價値다.

D. 集團利益과 個人的 利益에 관한 價値: 傳統的 價値에 의하면 이웃이 관계되는한 集團의 利益도 個人的 利益과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價値는 個人的 利益이 集團의 利益보다 훨씬 더 중요한것으로 修正되었다. 集團의 利益은 全體 集團의 構成員으로

(37) E. Beaglehole, Social Change in the South Pacific, N.Y. The MacMillan, 1957, p.253

서의 個人의 利益보다는 集團 全體를 위한 利益 追究를 뜻한다. 한편 個人的 利益은 他人에 대하여 자기의 이익을 먼저 강조하는것을 뜻한다.

VII. 理論的 模型

A. 標本 抽出 方法

이 研究의 對象은 契 자체 보다는 契의 構成員, 즉 契員이다. 契는 全國的으로 퍼져 있으나 그 機能 및 參加에 있어 지배적 價値는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적은수의 標本만을 抽出해도 되지만 구체적 目標 取得과 관련하여 중요한 狀況促進條件을 찾아내고 각 地域別로 社會, 경제적 狀況이 다르다고 생각됨으로 가능한한 여러 배경을 대표하는 多樣한 標本을 갖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地域 標本 抽出에 歷史的 生態學的 條件을 참작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즉

- a) 定着 年數
- b) 都市로 부터의 거리
- c) 地域的 文化的 차이 등

上記 基準에 의해 뽑은 地域 標本으로부터 無作為 標本 抽出을 진행한다. 標本들은 婚契나 喪契의 하나나 혹은 둘다의 構成員(非契員은 除外)인 個人이며 兩契의 標本 比率는 同率이 좋다.

B. 理論的 模型

質問할 문제들의 次元

<價値 次元>

- a) 經濟的 문제에 관한 價値(相扶相助)(經濟 次元):

集團利益指向(-) 個別利益指向(+)

- b) 孝에 관한 價値(孝 次元)

保守的(-) 對 進步的(+)

- c) 婚姻에 대한 價値(婚 次元)

保守的(-) 進步的(+)

각각의 次元들은 각기 독립된 continuum을 나타낸다. 이 세가지 次元은 즉 傳統-近代의이라는 하나의 composite continuum을 形成한다. 保守的이라는 말은 “孝와 婚姻에 대한 傳統的 의미에 대하여 상당히 지속적 價値를 부여하는 상태”를 뜻하며 進步的이라는 말은 “孝와 婚姻에 傳統的 意味에 별 價値를 두지않는 상태”를 뜻한다. 더 傳統的인 人間은 원래

의 價値에 더 執着하는 사람들이며 더 近代의인 人間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傳統的 價値를 더욱 變動시킨 사람들이다. 각각은 똑같은 加重值를 갖는다.

〈利益次元〉

價値指向의 目標 設定——利益指向의 目標 設定.

어떤 次元에서 價値와 利益중 어느것이 더 明示的 目的이 될 수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의 次元을 橫切斷함으로써 이 continuum은 검증될 수 있다.

observation을 통해 다음과 같은 4가지 指向型이 나올 수 있다.

價 值 次 元	價 值 指 向 型			
	type 1 傳 統 的	type 2 약간傳統的	type 3 過 渡 期 的	近 代 的
孝 (F)	-	- -	-	+
婚姻 (M)	-	- +	+	+
經濟 (E)	-	+ -	+	+

다음과 같은 3가지 型도 假定할수는 있으나 별로 없을 것이다.

	type 1	2	3	
F	+	+	+	
M	+	-	-	
E	-	-	+	

理論的으로 type 2는 약간 傳統的, type 1과 2는 과도기적 type에 속한다. 그리고 孝에 대한 價値는 가장 持續的이며 그 변동은 다른 價値의 次元에 變動이 있는 뒤에나 가능한 것으로 믿는다. 그러므로 孝에 대해 近代化된 價値를 가진 사람이 經濟나 子女 婚姻에 대해서 傳統的 價値를 고집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는 거의 생각되지 않는다. 筆者는 經濟的 價値가 가장 流動的이고 孝에 대한 價値는 가장 不動的이며 婚姻에 대한 價値는 그 中間值일 것으로 推定한다.

C. 調查 方法

인터뷰와 observation 방법을 원용, 社會文化的 狀況 研究에는 observation 方法을 態度 測定을 위해서는 인터뷰 방법을 活用한다. 스케일이 주요 測定方法이 되겠지만 프리테스트 결과에 따라 모든것은 조절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A Study of Model Building in an Attempt to Measure Behavioral Change in the Korean Village

—With special reference to “Kae” participation—

Kim Il-chul

The present paper deals with review of some concepts currently used in sociology today as key variable concepts in explaining social change. These concepts are value, interest, empathy, achievement, personality, thought-pattern, tradition and so forth.

The author tried to synthesize these concepts under the new theoretical framework: each concept seems not sufficient for a full-fledged explanatory system. It needs to be coordinated and integrated with other concepts and explanatory system. Value and interests, as central variables, have been conceptualized as a double coordination continuum which constitutes a major base of the present paper.

With this new explanatory system a measurement model by which behavioral change in the participation to “Kae” can possibly be scaled has been attempted. Delineated from the new theoretical synthesis, the following two basic hypotheses were developed;

- a) The traditional values related to marriage of one's children and neighborhood cooperation will less likely be changed than the traditional values related to the filial piety.
- b) The traditional values related to group oriented interest have shifted its focus to more individual-oriented interest.

The model consists of two theoretical dimensions; the first, value dimension and the second, interest dimension. The first dimension includes three continuums; these are the group-oriented value at the one end and the individual-oriented value at the other end, similarly conservative-progressive in the filial piety, and conservative-progressive in the

values related to marriage.

The second dimension (interest dimension) includes the one continuum; the value-oriented goal at the one end and the interest oriented goal at the other end. The first dimension will crosscut the last dimension in each continuum so that the proportion and the weight of either value or interest in the comparison can be tested.